

충북균형발전소식

2021년 10월호 e-letter

발행인 원광희 발행처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043-220-1190, 220-1194 www.balance.chungbuk.go.kr

중앙정부 정책동향

소멸위기 대응 ‘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

정부의 지방살리기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발표하며,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89여 곳의 시·군·구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총 8개 지표*로 지역별 자연적 인구 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향후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2년 동안은 상황에 따라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방소멸 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 지원) 및 국고보조금 등 패키지형태의 재원 투입으로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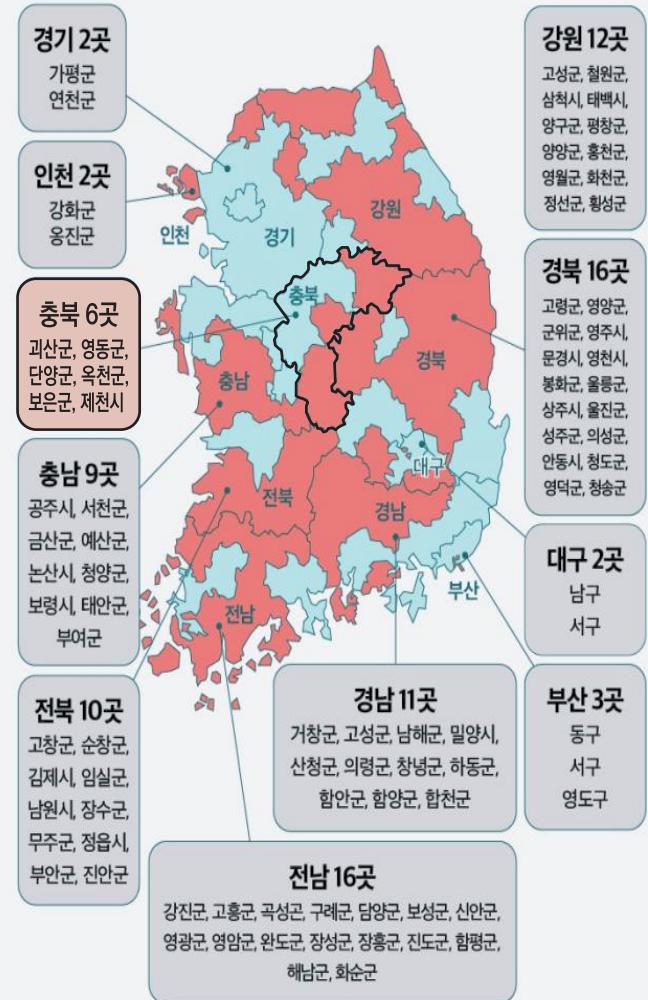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

한편,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선정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산정



자료 : 행정안전부 그래픽 : 노컷뉴스(안나경 기자)

02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시대의 시작!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경북 안동에서 개최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이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이다. 개최지인 안동시는 대구에서 이전한 경북도청이 자리한 곳으로, 코로나시대 신산업(백신)을 통해 지역 주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곳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균형발전 박람회로 주요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균형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으로 정해 분리 개최되었던 지방자치 박람회와 연계·개최함으로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시박람회와 학회, 전국 시·도연구원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정책박람회가 진행돼 54개의 세션을 통해 균형발전의 담론을 나누기도 했다. 사상 최초 온라인으로 개최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박람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금년 연말까지 박람회 홈페이지(regionsweek.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버추얼 전시관’을 운영해 실제 전시장에 방문한 것처럼 동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

01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형 농시(農市)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이 도내 11개 시·군에서 모두 추진된다.

농시 조성사업은 의료·복지·문화·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 수준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농시 조성사업은 1·2단계로 나눠 도내 8곳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11월 처음 선정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황간면(영동), 증평읍, 괴산읍, 매포읍(단양) 등으로 2022년 사업 완료 예정이다. 2020년 10월에 선정된 2단계 사업 대상지역은 내수읍(청주), 옥천읍, 진천읍, 삼성면(음성) 등으로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하반기 충주와 제천, 보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시 조성은 도시 수준의 삶을 누리고 보장받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농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한다는 기본 취지도 담고 있다. 현재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 전체 농업인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활력증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농시조성을 통해 농촌의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이다.

충청북도는 농시 조성에 따라 청년인구와 유아·청소년 인구비율이 2~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연계·추진해 생활·문화·의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

01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개통

내년 4월 유료화 추진

제천시는 지난 10월 22일 청풍호 주변인 옥순봉~옥순대교를 잇는 ‘옥순봉 출렁다리’의 개통식을 열고 내륙의 바다 제천 청풍호의 새로운 관광명소 탄생을 알렸다.

해당사업은 2015년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출렁다리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관리동 등의 편의 시설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 총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옥순봉 출렁다리는 길이 222m, 폭 1.5m를 자랑하는 무주탑방식의 출렁다리로 청풍호일원의 압도적인 경관과 함께 옥순봉을 근거리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곳이다.

출렁다리는 옥순대교에서 옥순봉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와 함께 자연, 건강을 주제로 한 걷기 길로 조성돼 방문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며, 총주댐으로 수몰돼 단절된 바 있는 수산면 괴곡리 자연마을 간 연결 길을 복원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장한지 2일 만에 주말방문객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새로운 관광명소의 탄생을 알렸다. 예상을 뛰어 넘는 방문객에 제천시는 인근 지역에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옥순봉의 지속적인 상품성 보강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옥순봉 출렁다리는 내년 3월 31일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이후 4월 1일부터는 유료화로 전환되어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2,000원의 지역화폐를 환급할 예정이다.



출처 :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보은군 보은한우 품격 향상!

‘한우유전자원센터’ 연구기능 강화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에 위치한 한우유전자원센터가 본래 목적인 우수한 혈통의 한우 개량 및 사육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연구중심 시설로 재탄생한다.

한우유전자원센터(이하 ‘센터’)는 충청북도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건립된 시설이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연구시설 및 인력 확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운영에 난항을 겪으며 보은·옥천·영동축협의 생축장으로 이용돼왔다.

보은군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아오다 2019년 보은한우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축산과를 신설하였고, 충북도 및 충북대학교 산학연 등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축협의 생축장 임대기간 종료시점인 2022년부터 보은한우의 유전자 분석 및 개량, 고품질 수정란 생산 및 이식을 위한 본래 연구기능을 갖춘 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은군은 수정란 생산 연구소, 유전분석 자료 시스템 개발 업체 등과 다방면으로 접촉하며 센터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후 센터가 본 모습을 되찾게 되면, 한우의 능력 개량 등을 통해 보은한우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은 이른 시일 내 센터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보은군 홈페이지(www.boeun.go.kr)

03

증평군 비대면 문화행사 ‘별빛 자동차극장’ 성료

증평군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 블랙스톤 벨포레(에듀팜 특구 관광단지)에서 ‘별빛 자동차 극장’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이번 자동차 극장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역량 강화 ‘민·관·군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육군 제37보병사단 군인을 포함해 증평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jp.go.kr)를 통해 사전 모집한 증평군민 등 총 140대(1일 70대)의 차량이 참여해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증평군에는 영화관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 발전 전략사업을 통해 조성된 증평군립도서관에서 ‘북적북적 작은 영화관’을 운영해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지만,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

운영중단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증평군립도서관은 비대면 문화생활에서 해법을 얻어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문화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출처 : 단양군 홈페이지(www.jp.go.kr)

04

괴산군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괴산군이 추진하는 압축형도시 ‘괴산 미니복합타운’이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며 괴산읍 도심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 하에 공공주택 및 공공문화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 괴산군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LH 임대주택) 350호, 분양주택 1,431호, 단독주택 35호 등을 건립해 상주인구 3,377명(1,816세대)이 거주 가능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군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괴산군립도서관,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도 조성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과 기반시설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고, 분양주택은 2023년에 분양해 2025년 입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괴산군이 추진하는 미니복합타운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평가는 전형적인 압축도시라기보다 압축과 복합을 융합한 형태로, 도시 기능을 거점 공간에 집적화해 인구를 모으고 생활을 효율화하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주택 부족 및 전·월세 상승 등의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단양군 다누리아쿠아리움 지역 체류형 관광 견인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신화를 이루어낸 국내최대 민물고기생태관 다누리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 다시금 큰 사랑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아쿠아리움은 2012년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263만명을 기록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안심관광을 선도, 지역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내·외부 기관·단체 등 40여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타 지자체로부터 현장견학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주시와 괴산군이 수족관 건립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도내 수족관 시설을 선점한 단양군의 성공적 운영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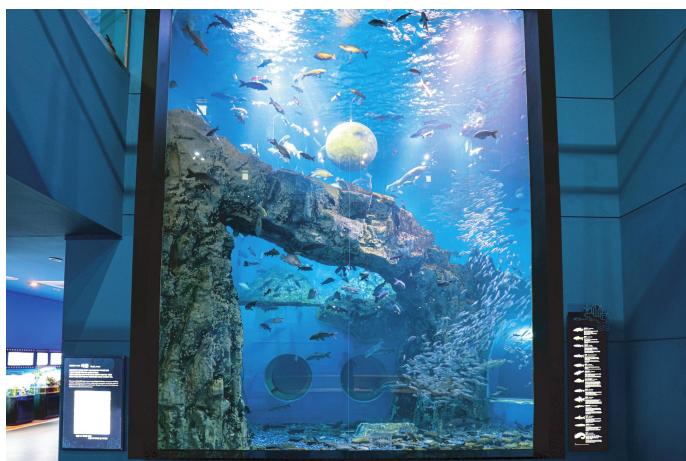
충청북도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아쿠아리움은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해 2012년 5월 단양강변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172여개의 크고 작은 수조에 국내·외 민물고기 230종, 2만 3천여 마리를 선보이며 볼거리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단양구경시장이 먹방 성지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증가해 아쿠아리움의 방문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역의 인기관광지인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가 10분 내에 위치한 것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양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 증상을 '물명'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쿠아리움 속 다양한 생물 전시를 통한 볼거리 확충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각 시·군별 홈페이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
- 충청북도 오늘의 道政報道 (21.09.18.~21.10.31.)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출처 : 단양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